



류마티스 관절염

제때 치료 안하면 폐·신경계까지 위험

류마티스 질환에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고,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잘 생기는 질환들이 따로 있다.



김윤성 류마티스내과 교수가 2주 동안 손가락과 손목 등에 심한 통증을 겪고 있는 여성을 진찰하고 있다.

관절이 부으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전형적으로 손가락, 손목, 발가락 관절 등에 주로 나타나며, 병이 진행함에 따라 팔꿈치관절, 어깨관절, 발목관절, 무릎관절 등도 침범한다.

손·발가락 관절서 주로 발생... 흡연은 질환 악화

정확한 원인 몰라 예방 어려워... 조기진단 중요

관절이 부으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전형적으로 손가락, 손목, 발가락 관절 등에 주로 나타나며, 병이 진행함에 따라 팔꿈치관절, 어깨관절, 발목관절, 무릎관절 등도 침범한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모른다.

인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여러 종류의 T세포 및 조절 단백질의 이상 등이 알려졌다. 이를 치료에 적용해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인 '안전 관해'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관절염이 양성이어서도 질환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다. 오히려 최근 연구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면역을 활성화시키는데 단백질의 시트린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전대병원, '스텐트' 최고 연구기관 자리매김

심혈관계 관련 특허 4건 잇따라 등록

전남대병원 심장질환 특성화 연구센터(센터장 정명호 교수·사진)가 2011년도에 대학병원 명의로 신청했던 심혈관계 관련 스텐트 특허 4건이 등록됐다.

에 앞서 지난 1일에는 '마이크로 CT scan을 이용하여 스텐트 내 재협착 평가 방법'에 관한 특허가 승인됐다.



후에 심혈관계 스텐트 개발에 성공할 경우 대학병원의 위상 제고는 물론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퇴행성 무릎관절염, 한약으로 치료한다

동신대 한방병원 채우석 교수팀 치료제 개발

난치 질환으로 인식돼오던 퇴행성 무릎관절염을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동신대 한방병원 채우석 교수 연구팀은 최근 한약을 달여 농축한 후 환약으로 제조한 무릎관절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한 결과 뇌혈류 촉진, 혈압 강화, 연골 재생, 관절염증 완화, 퇴행성 관절염 완화, 간·신장 기능 증진 등의 효과가 입증됐으며 독성검사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라고 소개하고 "외과적 수술이나 물리치료를 국한돼 왔던 무릎질환 치료에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대 의료봉사단, 소방공무원에 무료 임플란트 선물

조선대학교 자평의료봉사단(단장 김수관 교수)이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해 무료 임플란트 수술을 실시했다.



고차 임플란트 무료 수술을 해주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평의료봉사단은 김수관 대학원장의 주도로 결성됐으며, 봉사단 명칭은 김 원장의 호 '자평'에서 따왔다.

Advertisement for '방수' (Waterproofing) services. It features images of buckets of 'ENG 방수' (ENG Waterproofing) and text describing the benefits of the product, such as preventing water damage and mold. The contact information is 062-367-7755.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It includes sections for '현대공인중개사' (Modern Public Real Estate Agent), '다외부동산 재테크컨설팅' (Daeo Real Estate Investment Consulting), '가은 부동산' (Gaen Real Estate), and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Each section lists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available.